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9년도 제3호



“성모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여성의 사랑과  
수녀들의 사랑이 지닌 본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5년 5월 16일)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영적인 평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제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충만하고 헌신적이며 존경받으실 만한 수녀님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해 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통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성 수도자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셨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용기 있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여성 수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 중 일부는 나치 치하에 유대인이라고 박해받던 시민들을 숨겨 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른 일부는 최근 안락사의 그리스도교적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ACN에서 일하면서 저는 광활한 시베리아 별관, 내전이 끊이지 않는 시리아와 이라크, 빈민촌이 즐비한 이집트와 인도 등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일하시는 영웅과도 같은 여성 수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교적 자선과 언제나 변함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한 에너지와 기쁨으로 증거하는 여성 수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경탄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 줍니다.

우리 모두 여성 수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봉사하는 삶은 종종 잊혀지곤 합니다. 그러니 여성 수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도움을 원할 때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우리를 위해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부활 대축일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파스카의 신비와 모성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구세주의 수난으로 탄생한 교회는 전적으로 모성적인 존재입니다. 교회가 모성적 존재가 되는 데는 여성의 빛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아래 서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 마리아도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도들의 사도가 된 이도 여성이었습니다. 교회의 마리아 차원은 베드로 차원보다 앞섭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힘은 여성이 지닌 본성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끼지만 또한 매우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존하고, 양육하고 성장을 북돋우며 생명을 나누는 것, 이는 여성의 마음과 영혼이 지닌 자연스럽고 모성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위대한 순교자인 헝가리의 민드센티 추기경은 “나는 꽃으로 장식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 여성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성의 삶과 소명은 장미와 십자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성은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이를 위해 살고 그들에게 행복을 줍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와 교회에서 여성의 존엄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여성 해방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존엄성을 박탈당한 적이 많았고 이들의 미덕은 알려지지 못했으며 세상에서 배제되고 심지어 노예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이처럼 남성에게 종속되었던 과거의 전형적

인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여성만이 가진 특별한 천재성을 '남성 지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목 아래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성 해방이 단지 성별에 기반한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취급되는 것만을 의미하거나 성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성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명을 준다'는 본질에 독이 되는 것으로서 결국 영적 감염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순과 부활 시기에 캠페인을 진행하며 ACN이 목표로 삼은 것은 여성 수도자의 소명과 일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이 '진정한 천재성'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천재성이 없으면 어머니로서의 교회 또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의 삶에서 여성 수도자는 자신의 여성성을 잃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엄숙한 기도, 자비를 실천하는 활동, 신앙 전파, 아동 및 청소년 사목, 침묵 속의 찬양 등 여성 수도자들의 다양한 활동은 모든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싸 줍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자매입니다. ACN은 이 '특별한 여성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들을 향한 지원을 가능케 해 주시는 ACN 후원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 하느님 사랑의 사절단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이는 다름 아닌 여성 수도자일 것입니다. 여성 수도자는 수많은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임종을 앞둔 이와 유족에게 어머니가 되어 줍니다. 우리가 여성 수도자를 ‘마더(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성 수도자는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외롭고 나이 든 사람들의 자매가 되어 줍니다. 우리가 여성 수도자를 ‘시스터(자매)’라고 부르듯 말입니다. 여성 수도자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돌보고 가르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성 수도자는 단지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깁니다. 여성 수도자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의 눈빛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들의 눈이 바로 그리스도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수도자는 기쁨의 영혼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사심 없이 나누어 줍니다. 여성 수도자는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빛이요 소금이요 누룩이며 온 땅 위에서 일하는 마르타와 마리아입니다. 여성 수도자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하느님 사랑의 사절단’입니다. 여성 수도자는 하느님의 소중한 기쁨입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은 언제나 값집니다.



## 열정적인 사랑의 사업

모범적인 삶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은 모리타니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활동하는 여성 수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리타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리타니인들은 중세 시대 때부터 이슬람교를 모태 신앙으로 믿어 왔습니다. 누악쇼트 교구장 마르틴 하페 주교는 자신이 사목하는 지역의 삶이 “인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가톨릭교회의 여성 수도자들은 어린이를 돌보고 환자를 간호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읽기와 쓰기, 바느질 등을 가르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여성 수도자들은 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아미나타 디알로라는 한 어린이는 영양실조로 인해 다섯 살 때 몸무게가 9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아미나타가 찾아오자 영양 공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미나타의 어머니에게 알려 주며 아이가 걷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이제 아미나타는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고 건강해졌습니다. 아미나타처럼 여성 수도자들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신뢰를 북돋웁니다. 하지만 여성 수도자들은 모리타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CN은 이 ‘열정적인 사랑의 사업’을 위해 모리타니에 있는 여성 수도자 27명에게 약 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 스캔들이 교회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대륙인 남미에서조차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제와 신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남미 안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국가에서 한 공동체가 미래를 위한 봉화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루과이 플로리다에서 활동하는 맨발의 가르멜 수녀회입니다.



벨렌 수녀



수녀원 건물



마리아 수녀

이곳에는 12명의 여성 수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8명은 종신서원을 했고 2명은 유기서원을 했으며 다른 2명은 청원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도원 입회 허가를 기다리는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하느님께서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는지 부드럽지만 아주 분명하게,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성지 순례를 하다가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리는 소리를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시에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사실 페르난도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시기에 가르멜회 수녀를 만나 리지외의 성녀 테레사가 쓴 <한 영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이제 충분합니다! 표징은 더 없어도 됩니다!”라며 다시금 기도할 때까지 하느님 부르심의 표징이 날로 뚜렷해졌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론 의사가 되고 싶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싶기도 했던 그는 약혼자와 함께 성 요셉께 드리는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몇 달 뒤 이 둘의 9일 기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가르멜회 수녀가 마리아에게 “요셉 성인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수녀원에서 받게 될 새로운 소명에 대해 함께 성 요셉의 전구를 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그때서야 마음속의 무거

운 짐을 벗었다고 밝힙니다. 이것으로 마리아의 입회 심사는 대체되었고 페르난도와 마리아는 파혼했습니다. 사실 페르난도는 이를 예상하고 스스로의 소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몬테비데오의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구들은 물론 그녀의 부모가 입회를 말렸지만, 가르멜회 수녀들은 마리아의 입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부모님 앞으로 사랑의 편지를 쓴 뒤 창문을 타넘어 마침내 가르멜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벨렌 수녀 역시 가슴이 타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본당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제였던 그의 숙부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벨렌 수녀는 깊은 슬픔 속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또한 <한 영혼의 이야기>를 읽고 가르멜 수녀회를 알게 되면서 “이곳이 바로 내 집이고 천국으로 통하는 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다른 젊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수녀원에는 모두를 받아들일 만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다섯 개의 공간을 추가하는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녀원에서 자그마한 온라인 매장을 통해 자수, 바느질 등 수공예로 만든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는 모든 공사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ACNO이 이를 위해 약 9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없어서는 안 될 수녀들의 활동

보편 교회의 특성을 이보다 더 잘 보여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설립된 성체의 가난한 글라라 수녀회 소속 수녀 두 명이 러시아 사라토프 교구에서 독일 출신 클레멘스 피켈 주교의 지도하에 사목 활동과 교리 교육을 돕고자 먼 길을 왔습니다.



피켈 주교와 수녀들



마르크스 마을에서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에브게니아 수녀

나이지리아 출신인 아나스타샤 응두부이시 수녀와 코르델리아 엔웨레우조 수녀는 당장 러시아어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라토프의 산 클레멘테 교구장인 피켈 주교는 “수녀들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라며 두 수녀가 러시아에 도착해서 눈과 안개를 난생처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설명했습니다. 사라토프의 산 클레멘테 교구는 ‘문화의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수녀 61명 중 대부분은 아프리카, 필리핀 등지의 여러 수도회에서 파견되어 온 이들입니다. 주로 폴란드 출신이 많지만 공산 독재 시절에 지하 교회를 겪었던 러시아 국적 수녀들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수녀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근본적인 결심에 가족의 영향을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느님의 부르심과 열린 마음만으로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켈 주교는 수녀들이 교리 교육을 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일할 때, 환자를 찾아갈 때, 노인을 돌볼 때 그리고 미사를 준비할 때마다 매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찬

사를 보냅니다. 피켈 주교는 “수녀들이 미사를 준비하면 저는 그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해 헌신하는 데는 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 중 하나인 사라토프의 산 클레멘테 교구는 수녀들이 없다면 제 역할을 다하기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교구 관할 지역의 인구가 총 4500만 명인데, 그중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0.04%인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곳에 외국인 수도자가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나스타샤 수녀와 코르델리아 수녀는 가톨릭 신자나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어 교육을 받는 데는 4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수녀들은 이를 마련하기는 커녕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벅찬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피켈 주교는 “이 수녀들을 돕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충분하지요.”라며 신중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실제로도 교구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ACN은 이를 위해 약 4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시리아의 청년 대회

시리아의 사미아 즈레지 수녀가 매우 행복해하며 하느님께 그리고 ACN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미아 수녀가 속한 예수와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 수녀회가 알레포, 홈스, 다마스쿠스, 타르투스, 라타키아 출신 청년들과 함께 청년 대회를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이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기도하며 이들을 보냈습니다. 사미아 수녀는 서신을 통해 “시리아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모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시리아의 젊은이들은 청년 대회를 통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미아 수녀가 이들을 대신하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기도 안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ACN의 수행 가능한 사목 활동이 사용됩니다.



## 무엇이 필요한지 봅니다

“포도주가 없구나.”(요한 2,3)

성모님은 카나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기도와 행동으로 도우며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일, 바로 이것이 브라질 아라카주 대교구에서 활동하는 마리아의 도미니코 수녀회의 소임입니다. 맨 처음 5명의 수녀들이 이곳에 왔고 지금은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빈민가와 도시 변두리를 찾아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젊은이를 모아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가톨릭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지역은 극심한 빈곤의 여파로 유사종교가 창궐하고 올바른 인식보단 무지가 만연해 진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ACN 어린이 성경이 유용한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사목 직무와 복음화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 수녀회에 운송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ACN이 자동차 구입 비용으로 약 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기도의 요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루카 1,38)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조촐하게 응답했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했습니다. 이 묵상적 순명은 온 세상이 회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는 묵상을 통해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은 “세상이 영적인 평정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CN은 설립 초기에는 동유럽에서, 오늘날에는 세계 곳곳에서, 모든 공동체가 바치는 기도예 의지해 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부카부의 트라피스트회 수녀 22명 역시 매일 ACN의 활동과 후원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빈곤으로 얼룩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관상 수도원을 보며, 우리는 베렌프리트 신부가 말한 “영적 감성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신성함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영적인 요새”가 어떠한 의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여성 수도자들은 대부분 젊습니다. 이들은 부지런히 닭을 기르고 야채를 재배하지만,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ACN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CN은 2019년 한 해 동안 약 3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이것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성모님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에서 활동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구세주 선교 수녀회는 성모님의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 교도소를 방문하고 장애인과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와 젊은 미혼모를 보살핍니다. 또한, 공산주의로 인해 영적으로 황폐화된 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신앙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매우 강합니다. 문제는 여성 수도자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체르니히우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구세주 선교 수녀회의 우크라이나 관구장인 테오도라 수녀는 수도자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단 3명뿐이었지만 이제 4명의 청원자가 더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침묵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ACN은 수녀원 확장 비용으로 약 3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메아리〉에서 시리아의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읽을 때면 제 가슴이 다 저릿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고통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뎌 내고 있다니 저로서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힘들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지난 5년간 실직 상태였고 세 살배기 딸을 키우다 보니 현재로서는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시리아의 형제자매들을 함께 돕고자 합니다.

## 하느님의 은총을 빕니다

시리아의 형제자매들을 돕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함께 가서 돕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빕니다.

## 하느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

성탄 선물로 ACN에서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베렌프리트 신부님이 쓰신 책 〈하느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을 받았을 때 저는 가난한 이들과 종교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제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 역시 1945년에 솔레지엔 지방 출신 난민으로 이곳에 와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중에 늘 ACN을 기억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친구들과 베렌프리트 신부님의 책을 돌려보면서 신부님의 뜻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마주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며 용기를 내는 여러분께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04537)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 ACN 한국지부 법인명과 후원계좌 예금주명 변경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ACN 한국지부의 법인명과 예금주명이 '사단법인 고통받는교회돕기 한국지부(ACN Korea)'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CN은 '고통받는 교회 돕기'라는 뜻의 Aid to the Church in Need의 약어로서, ACN 한국지부는 이 영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라는 법인명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후 ACN 국제본부와 23개국 지부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ACN이 단일 조직임을 나타내면서도 각 지부의 고유 지명에 어울리는 단체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한국지부의 한국어 명칭 사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쉽고 친근한 명칭을 공식적으로 두루 사용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는 한국지부가 되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더 큰 사랑과 기도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ACN 농협은행 후원계좌가 신설되었습니다 { 농협은행 317-0016-3132-21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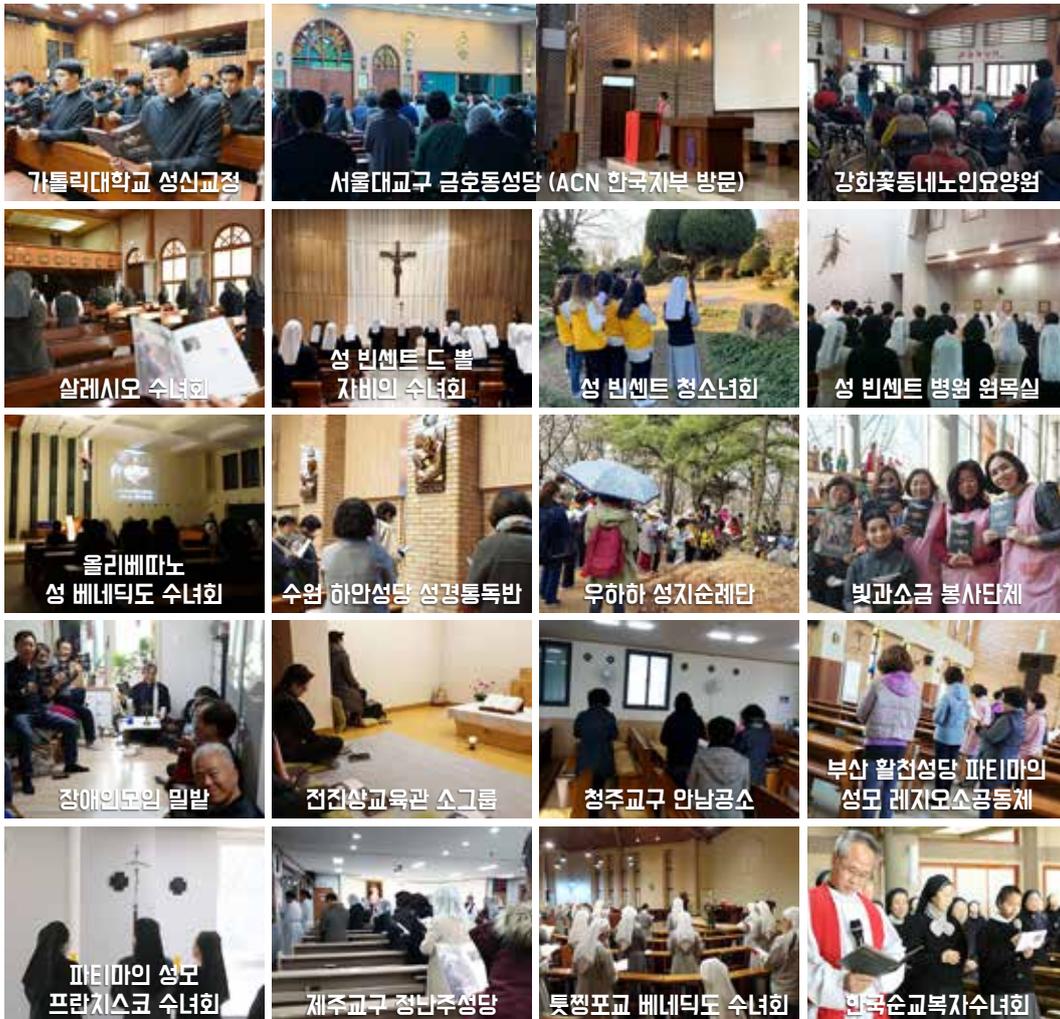
❤ 캠페인

## ACN 십자가의 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CN은 2019 사순·부활 캠페인으로 '특별한 여성들'이라는 여성 수도자 돕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ACN 한국지부는 <전 세계의 여성 수도자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을 제작 및 배포하여 사순 시기 동안 함께 기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개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ACN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함께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 주신 분들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